



EBB 실모공방

2027학년도 대비

기본편 BASIC

2027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문논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6문항 11소문항 · 80점 · 120분

2027 모의논술 가이드북의 문항 형식·배점 반영

공식 모의와 같은 채점 방식(체크리스트형·수준형)

2026년 최신 시사 통계 + 고교 교과서 제재

BASIC

실전 모의고사

제1회

이 파일은 EBB 실모공방이 자체 제작한 유료 교재입니다.

무단 공유를 보시면 구매한 곳의 EBB 실모공방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 EBB 실모공방

제1회 실전 모의고사 · 인문계열 · 기본편

시험 시간 120분 (목표 풀이 시간 90분) · 6문항 11소문항 · 총 80점

수험번호

성명

응시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전과 같이 시계를 두고 끝까지 풀어 보십시오.
2. 답은 반드시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에 쓰십시오. 문제지에 쓴 답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3. 계산기와 사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그래프의 수치는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4. 각 문항의 ※ 조건(문장 수, 글자 수, 반드시 넣을 표현)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5.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십시오(연필 사용 가능).

문항 구성

문제	배점	문항 형태	답안 조건
문제 1	20점	표 해석 → 판단·선택 + 이유 쓰기	2문장 이내 / 3문장 이내, 필수 표현
문제 2	10점	반박 관계 요약, 빈칸 찾아 쓰기, 증감 판단	200자 이내 / 각 6자 이내
문제 3	10점	그래프 해석 + 제시문 핵심 주장	300자 이내
문제 4	17점	사상 빈칸 + 제시문 근거 서술	300자 내외
문제 5	13점	한국사 시간 순서 배열 + 용어·반론	100자 내외
문제 6	10점	상황 속 안내문 쓰기	200자 내외

답안 작성 요령

- 글자 수는 공식 모의 가이드북의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씁니다. 서술형 답안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세고, 빈칸 단답의 '각 ○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씁니다(공식 예시 답안은 '각 6자 이내' 빈칸에 '노령화의 추세'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지는 띄어쓰기·문장 부호·숫자 한 자리도 한 칸입니다.
- 발문의 가)·나)는 답을 나누어 쓰는 칸의 표시이며, 답안지의 같은 표시 칸에 씁니다. 제시문 (가)·(나)와는 다릅니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감점합니다. '○○자 내외'는 기준의 85~115%를 목표로 쓰고,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으면 감점합니다.
- '찾아 쓰시오'는 제시문에 있는 말을 글자 그대로 옮겨 씁니다.
- 제목이나 서명을 쓰면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쓰지 않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제1회 v3.23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20점

(가)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급은 직급이나 근무 연수에 따라 미리 정해져 해마다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성과급은 개인이나 회사가 거둔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모두에서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성과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임금 체계이다. 정부는 2016년 1월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여, 간부직에만 적용하던 성과 연봉제를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넓히고 연봉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이도록 권고하였다.

최근에는 회사의 영업이익에 연동하여 성과급 재원을 정하는 방식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2025년 9월 SK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에서 지급 상한을 없애고 이 방식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26년 5월에는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안이 가결되었다. 반면 2026년 8월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구조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논쟁의 바탕에는 성과급을 무엇을 위해 늘리느냐는 물음이 놓여 있다. 기업이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목적으로는 흔히 인건비 부담 완화, 개인 간 성과 경쟁 촉진, 회사가 거둔 이익을 직원과 나누는 일이 꼽힌다.

표 1 임금 구성 요소의 특징

구분	결정 기준	해마다 받는 금액
기본급	직급·근무 연수	미리 정해져 안정적이다
성과급	개인 또는 회사의 성과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표 2 기업 C의 현황 및 임금 체계 개편 계획

구분	항목	내용
기업 규모	전체 직원	2,000명(개편 뒤에도 같음)
현황	총 인건비(연간)	1,000억 원
	임금 구성	기본급만 지급
개편 계획	성과급 총액	해마다 영업이익의 10%(영업 손실이 난 해에는 0원)
	개편 첫해 영업이익	2,600억 원
중요 유의사항	총 인건비	개편 전(1,000억 원)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
	성과급 배분	개인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같은 비율로 지급
핵심 변화	성과급 비중(총 인건비 대비, 개편 첫해)	0% → 20%

1-1 표 2를 바탕으로, 개편 첫해 기업 C의 기본급 총액이 개편 전에 비해 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고, 나) 그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2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답안에는 반드시 "기본급"과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시오.

1-2 표 2의 자료에 근거하여, 기업 C의 개편 계획이 제시문에 제시된 목적(① 인건비 부담 완화 ② 개인 간 성과 경쟁 촉진 ③ 직원과의 이익 공유) 중 어느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지 가) 목적 하나를 고르고, 나)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3문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답안에는 표 2에 제시된 수치를 반드시 활용하고, "확대"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시오. 답안에는 가)에서 고른 목적의 핵심어를 그대로 포함하시오.

■ 채점 공통 규칙

- 글자 수: 서술은 **공백 포함**으로 센다(원고지 한 칸 = 한 글자). 숫자는 한 자리에 한 칸(1,040은 쉼표 포함 5칸, 98.6%는 5칸), 띄어쓰기·문장 부호·기호도 한 칸이다. 제목·서명이나 '반론:' 같은 표지를 쓰면 그것도 세고 줄바꿈은 세지 않는다. 원고지 한 칸에 두 글자 이상 몰아 쓴 경우 글자 수로 다시 센다((가)는 3자). 빈칸 단답의 '각 6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센다(공식 모의 2-2가 '노령화의 추세'를 정답으로 인정한 방식).
- 문장 수: 'N문장 이내'를 넘기면 2점을 뺀다(공식 기준과 같음). 문장은 마침표·물음표·느낌표로 세고, 소수점(98.6)은 문장 끝이 아니다.
- 1-2 선택지 핵심어: 정답 선택지의 핵심 낱말 가운데 하나가 글자 그대로 들어 있으면 인정한다(공식 모의는 '경쟁 부재'와 '비효율성' 가운데 하나를 인정). 이 회차의 핵심 낱말은 공유이다. 이익 공유, 직원과 공유처럼 공유가 글자 그대로 들어 있으면 인정하고, 띄어쓰기·조사가 달라도 같은 낱말이면 인정한다(이익을 공유, 이익을 직원과 공유). 비슷한 말로 바꾼 것(이윤 배분, 수익 나눔, 이익을 나눔)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익만 들어 있는 답은 표 2의 영업이익과 구별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 가)에 쓴 선택 표기는 핵심어로 세지 않고, 가)가 틀리면 핵심어는 0점이다.
- 빈칸 답(㉓ 등)은 답안지의 단답 칸에 따로 쓰므로 서술의 글자 수에 넣지 않는다. 서술 칸 안에 쓴 표지('반론:' 등)는 센다.
- 찾아 쓰기 단답은 지문에 있는 말로 쓴다. 공식 모의가 '노령화의 추세' 자리에 '노령화'와 '인구 노령화'를 함께 인정했듯, 정답의 핵심 낱말을 살린 채 꾸밈말을 덜거나 더한 답과 빈칸 앞뒤 말이 겹친 답은 인정한다(예: 2-2 ㉓ 국가 온실가스, 4-1 ㉓ 시인의 감정, ㉓ 사회적 유용성). 지문에 없는 낱말로 바꾼 답, 빈칸이 가리키는 것과 다른 대상(더 넓은 말, 다른 개념)을 쓴 답은 0점이다(예: 2-2 ㉓ 의무지출 자리의 지출, 5-2 ㉓ 주화론 자리의 주화파). 글자 수 조건이 있는 빈칸(2-2)은 한도를 넘기면 0점이다.
- 상한 규정은 최대 점수만 정한다. 다른 감점과 겹치면 낮은 쪽을 따른다.
- 반박 요약(2-1)은 공식 모의처럼 수준형으로 본다. 수치 인용은 요구하지 않는다. (나)에 있는 사실을 거꾸로 단정하면(예: (나)에서 늘어난 것을 '늘지 않았다'고 씀) 5점 문항은 3점, 4점 문항은 2점이 상한이다.
- 1-2의 수치는 표에 있는 수치나 그것으로 바르게 계산한 값만 센다. 잘못 옮기거나 틀리게 계산한 값, 단위가 틀린 값(%p를 %로 쓴 것)은 세지 않는다.
- 그림 해석(3번)은 수치를 쓰지 않아도 바르게 읽었으면 감점하지 않는다(공식 예시답안에도 수치가 없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1점을 뺀다. '○○자 내외'는 기준의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을 때만 1점을 뺀다(300자 내외는 150자 미만·450자 초과, 200자 내외는 100자 미만·300자 초과, 100자 내외는 50자 미만·150자 초과). 공식 채점기준에는 분량 감점이 없고, 공식 6-1 예시답안은 기준의 132%다. 연습할 때는 85~115%를 목표로 쓴다.
- 6번의 핵심어는 조사·활용이 달라도 같은 낱말이 들어 있으면 인정한다(예: 차별적인·존중하는·공동체적). 목록에 없는 비슷한 말은 세지 않는다.
- 6번의 글 형식(존댓말, 인사, 받는 사람·보내는 사람, 맺음 말투)은 지문이나 발문이 요구한 것만 채점한다. 요구가 없으면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감점하지 않는다.
- 답과 무관한 글·표식(낙서, 자기 이름·학교 등)은 글자 수에서 빼고 채점하지 않는다. 실제 시험에서는 신원 표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쓰지 않는다. 글의 종류에 맞는 말머리나 서명('학생회입니다')은 글자 수에 넣는다. 인사말('안녕하세요')은 글자 수에서 빼고, 연설·발표처럼 문항이 청중을 부르는 말을 요구하면 본문으로 센다. 상황에 나온 인물 이름으로 끝맺음을 밝히는 것은 신원 표식이 아니다.
- 5-1 배열은 다른 항목과 구별되면 항목 이름을 줄여 써도 인정한다(예: 군신 관계 요구, 형제 맹약, 사르후). 두 항목에 함께 해당하는 줄임말을 쓰면 그 칸은 틀린 것으로 본다. 모두 맞아야 5점이다(공식 기준).
- 감점은 그 문항의 요소 점수 합에서 빼며, 문항 득점은 0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문제 1 ·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20점

1-1 표로 기본급 '총액' 증가·감소 판단 + 이유 2문장

10점

■ 정답과 예시답안

- 가) 증가
- 나)

공백 포함 **186자** · 공백 제외 144자 · 2문장 · 조건 2문장
개편 첫째 성과급 총액은 영업이익 2,600억 원의 10%인 260억 원이고 이것이 총 인건비의 20%이므로, 총

인건비는 1,300억 원이고 기본급 총액은 1,300억 원에서 260억 원을 뺀 1,040억 원이다. 성과급이 생겨 기본급의 비중은 80%로 줄지만, 기본급 총액은 개편 전 1,000억 원보다 40억 원 많아 증가한다.

■ 채점 체크리스트

☐ 가) '증가'로 판단했다 (감소·변화 없음은 0점)

3점

☐ 나) "기본급"이라는 표현이 있다

1점